

모노클 삶의 질 컨퍼런스 참석 및 마을재생 관련 기관 방문·사례조사

2019.6.27. - 7.4.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런던·리버풀

윤주선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목 차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1. 출장개요	1
2. 출장목적 및 방문기관	1
3. 세부일정	2
II. 모노클 삶의 질 컨퍼런스	3
1. 개요	3
2. 주요 발표내용	6
III. 기관방문 및 현장답사	13
1. 어셈블(Assemble) 본사 답사 및 인터뷰	13
2. 블랙호스 워크샵(Blackhorse workshop) 답사	20
3. 그랜비 포 스트리트츠(Granby four streets) 답사	21
4. 모노클(Monocle) 본사 답사 및 인터뷰	23
5. 마드리드 센트럴(Madrid Central) 답사	24
6. 마드리드 마타데로(Madrid Matadero) 답사	26
7. 자문회의	28
IV. 종합 및 시사점	29
V. 취득자료	30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출장개요

- 사 업 명 :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 출장기간 : 2019년 6월 27일(목) ~ 7월 4일(목) / 6박 8일
- 출장지역 :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런던·리버풀
- 출 장 자 : 윤주선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2. 출장목적 및 방문기관

□ 출장목적

- 모노클 삶의 질 컨퍼런스 참석
 - 모노클은 2007년 영국에서 창간된 잡지로 2015년부터 세계 주요 도시에서 '삶의 질 컨퍼런스(Quality of Life Conference)'를 개최하며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금번 컨퍼런스는 마을재생 관련 분야(건축, 관광, 디자인, 소매업, 미디어 등) 유명 연사의 발표 및 패널 토론, 답사 등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 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마을재생 사업의 시책 발굴 및 해외경향 파악을 한자리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회임
- 지역재생 관련 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 스페인 마드리드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지역 답사
 - 영국 런던 및 리버풀 지역의 셀프빌드(Self-build) 관련 건축가 그룹인 어셈블 프로젝트 사례 조사

□ 방문기관 및 답사지

- (방문기관) 런던 모노클 본사, 런던 어셈블 본사
- (답사지) 런던 블랙호스 워크샵, 리버풀 그랜비 스트리트(그랜비 포 스트리트 프로젝트, 그랜비 워크샵, 윈터가든 등), 마드리드 센트럴, 마드리드 마타데로

3. 세부일정

일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정	기타
6월 27일 (목)	11:40 18:00	인천	마드리드	인천 출발, 마드리드 도착 (13시간 20분)	항공
6월 28일 (금)	09:00 18:00				
6월 29일 (토)	09:00 14:00			모노클 삶의 질 컨퍼런스 참석	
	14:00 18:00	마드리드		마드리드 마타데로 답사	
6월 30일 (일)	09:00 12:00			마드리드 센트럴 답사	
	12:10 13:35	마드리드	런던	마드리드 출발, 영국 도착 (2시간 25분)	항공
	14:00 18:00			자문회의 (UCL 조현지 박사)	
7월 1일 (월)	09:00 12:00		런던	어셈블 프로젝트 답사 (블랙호스 워크샵)	
	13:00 18:00			어셈블 본사 방문 및 인터뷰	
7월 2일 (화)	09:00 12:00		런던	모노클 본사 방문 및 인터뷰	
	12:00 14:00	런던	리버풀	런던 출발, 리버풀 도착 (약 2시간)	철도
	14:00 18:00	리버풀		어셈블 프로젝트 답사 (그랜비 포 스트리트)	
7월 3일 (수)	11:00 13:00	리버풀	런던	리버풀 출발, 런던 도착 (약 2시간)	철도
7월4일 (목)	19:35 14:35(+1)	런던	인천	런던 출발, 인천 도착 (11시간)	항공

II. 모노클 삶의 질 컨퍼런스

1. 개요

1) 모노클

- **(매체성격)** ‘모노클(Monocle)’은 타일러 브뤼레(Tyler Brûlé)가 2007년 영국에서 창간한 잡지로 국제 정치·경제 뉴스와 패션,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뉴스매거진을 표방
 - 타일러 브뤼레는 캐나다 국적의 저널리스트로 BBC 리포터, 기자로 활동함
 - 기자생활 이후 1996년 잡지 ‘월페이퍼(Wallpaper)’를 창간하여 1997년 타임위너사에 1백만 파운드에 매각하였으며 2002년까지 월페이퍼의 편집장을 역임
 - 모노클 잡지는 발행 호당 8만부 이상을 판매하고 있고 연간 정기구독자도 전세계 2만명 이상인 영향력 있는 잡지임
 - 잡지는 A(Affairs), B(Business), C(Culture), D(Design), E(Entertaining), F(Fashion) 챕터로 구성되며 이른바 ‘뉴스의 패션화’를 주도했다는 평가
- **(발간내용)** 모노클은 2007년 이래로 연간 10개 제호를 출간하고 있으며, 2013년 빅북시리즈, 2015년 트래블가이드, 포캐스트, 이스케이피스트 등 잡지 이외 단행본, 연간지 등도 발행
 - 빅북시리즈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모노클 가이드(The Monocle Guide to Better Living)’, ‘좋은 비즈니스를 위한 모노클 가이드(The Monocle Guide to Good Business)’, ‘편안한 집을 위한 모노클 가이드(The Monocle Guide to Cosy Homes)’,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노클 가이드(How to Make a Nation : A Monocle Guide)’,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대한 모노클 가이드(The Monocle Guide to Drinking & Dining)’ 등이 있음
 - 트래블가이드는 런던, 서울, 도쿄, 취리히,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총 35권이 발간되었으며, 연말에 발행하는 포캐스트는 총 5권, 여름 휴가시즌에 발행하는 이스케이피스트 총 5권이 발간됨
- **(주요활동)** 모노클은 잡지 등 인쇄매체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노클 기준에 부합하는 브랜드와 협력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도 운영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시작한 라디오 채널인 ‘모노클24(Monocle 24)’, 모노클 연재 기사와 최근 소식이 업로드 되는 ‘모노클닷컴(monocle.com)’ 등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 모노클24의 경우 25개 채널을 운영하고 매일 생방송을 통해 모노클만의 관점으로 정치·경제·문화·건축·디자인·도시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음
 - 모노클 컬레버레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모노클 샵(Monocle shop), 커피와 식사를 판매하는 모노클 카페(Monocle Cafe), 신문가판대 컨셉의 키오스카페(Kioskafe) 등을 운영
- **(기타 활동)** 이외에도 2015년부터 ‘삶의 질 컨퍼런스(Quality of Life Conference)’를 개최하며 ‘삶의 질’ 아젠다에 부합하는 이슈를 발굴하고 있음

2) 모노클 삶의 질 컨퍼런스

- **(삶의 질 이슈)** '삶의 질'은 모노클 창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다뤄온 주제로 매년 '삶의 질 서베이(Quality of Life Survey)'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25위까지 제시하고 있음
 - 도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대중교통 비용, 임대료, 도시내 공원 수 등 일반적인 지표부터 독립서점의 수, 평균 노동시간, 지방정부의 투명성, 국제공항의 취항지 수 등 일반적인 도시평가 지표와는 다른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60여개 지표 활용)하고 있음
- **(삶의 질 컨퍼런스)** 이러한 삶의 질 아젠다 확산과 이슈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2015년부터 '삶의 질 컨퍼런스(Quality of Life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음
 - 2015년 포르투갈 리스본, 2016년 오스트리아 빈, 2017년 독일 베를린, 2018년 스위스 취리히에 이어 2019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 컨퍼런스 참석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여 관련 기관(금융, 정부, 미디어, 건축, 디자인, 소매업, 관광업 등) 참석자간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컨퍼런스 진행방식)** 컨퍼런스는 다양한 분야 연사의 발표가 집중된 금요일 세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컨퍼런스 발표는 10분에서 길어도 30분 이내의 비교적 짧은 토크로 이루어 짐
 - 일반적인 컨퍼런스는 해당 분야의 교수, 학자, 전문가 등의 발표로 이루어지나, 삶의 질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건축가부터 작가, 기자, 호텔리어, 로컬 스타트업 대표, 로컬 레스토랑의 셰프, 로컬 편집샵 큐레이터 등 각계각층의 패널에게 호스트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
 -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개최 도시의 지역성과 글로벌 관점의 이슈를 적절한 균형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모노클 삶의 질 컨퍼런스 이미지

출처: <https://conference.monocle.com> (검색일: 2019.7.24.)

□ 주요연사

• 얀겔(Jan Gehl)

- 건축가, 교수 및 도시 디자인 컨설턴트
- 도시공간을 보행자, 공공공간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조성하여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다수의 저서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됨

• 데이비드 치퍼필드(Sir David Chipperfield)

- 런던, 베를린, 밀라노,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의 대표 건축가이며, 민간 및 공공부문뿐 아니라 시민 프로젝트, 도시 마스터플랜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업무를 수행

• 로시오 무뇨스(Rocio Munoz)

- 스페인 장인의 제품을 큐레이션·유통하는 리얼 페브리카의 설립자









• 칼라 졸리(Carla Sozzani)

- 10코르소코모 설립자로 사진, 패션, 디자인, 음악 및 요리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쇼핑 컨셉과 '느린 쇼핑'이라는 컨셉을 제시

• 몬테 기옌(Montse Guillen),

- 스페인 출신으로 뉴욕 트리베카 지역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트리베카 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

Who you'll meet in Madrid.

			
Sir David Chipperfield <i>Founder</i>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Julia Hobsbawm <i>Author and social commentator</i>	Jan Gehl <i>Architect and urbanist</i>	Javier Goyeneche <i>Founder</i> Ecoalf
			
Pablo Soler and Daniel Fletcher <i>Primavera Sound</i>	Adam Moss <i>Former editor in chief</i> 'New York Magazine'	Montse Guillén <i>Chef and founder</i> El Internacional	Miquel Àngel Vaquer <i>Chairman</i> Casa Mariol

[그림] 컨퍼런스 주요연사

출처: <https://conference.monocle.com> (검색일: 2019.7.24.)

2. 주요 발표내용

□ The big interview : Jan Ge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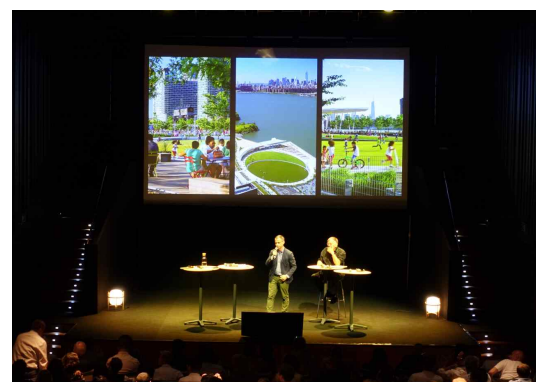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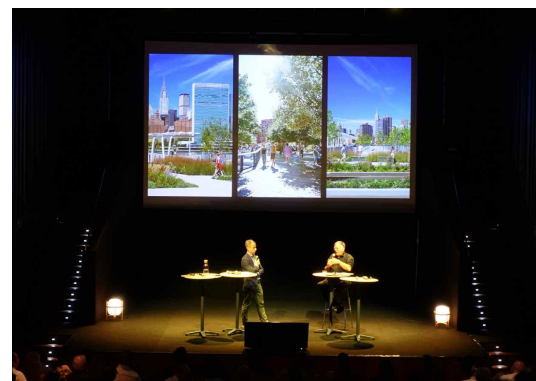
- 페 널 : Jan Gehl(건축가, 도시계획가)
- 주요주제 : 도시의 미래

- (사회자) 미래 도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 (Jan Gehl)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2024년에는 인구의 30퍼센트가 은퇴 후 인구라고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도전이다. 또한 우리는 도시 내에서 어떻게 이동할 것일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자전거와 걷는 것은 건강에 일단 좋고 대기가스 절감에 효율적이다.
- (사회자) 어떤 도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Jan Gehl) 코펜하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더 잘 활용된다. 도로가 너무 넓으면 차량 중심의 도시가 된다.
- (사회자) 덴마크에서 좋은 도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 (Jan Gehl) 나는 1960년대부터 일을 했다. 61년에는 심리학자나 마찬가지로였다. 왜 건축가들은 사람들에게 신경쓰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건축가들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간의 건축가들은 사람들의 심리에 신경쓰지 않았다.
- 물리적 환경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할수록 좋은 공간은 사람과 환경에 좋은 공간이란 것을 깨달았다.
- (사회자) 전기스쿠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플라잉 택시,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가?
- (Jan Gehl) 전기스쿠터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근육을 약간 쓰긴 쓰지만 거의 쓰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기술발전을 무척이나 강조하지만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런 것들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기술이 발전되며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남아프리카,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선진국이 아닌 곳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시티에 투자할 자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 아마 그때쯤 되면 코펜하겐은 더 흥미로운 사례가 될 지도 모른다. 코펜하겐은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는가에 초점을 맞춘 도시이기 때문이다.
- 도시민 41퍼센트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 이걸 투자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 기반시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 이러한 시스템은 자동화된 운송시설처럼 전반적인 기반시설 정비의 필요가 없다. 우리가 10년 전에 코펜하겐을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건 공공공간과 보행 중심의 도시에 대한 계획이었다.

- 사람들을 어떻게 사적인 공간에서 밖으로 이끌어 낼지, 어떻게 공공공간으로 나오게 할지,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게 하는지에 대한 구상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좋고 환경에 좋으며 민주주의에 좋다.
- (사회자)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은 고층빌딩을 만들고 싶어 한다. 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층건물을 올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가?
- (Jan Gehl) 다양한 도시의 사례를 봐야 한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높은 빌딩을 올리는 것은 무척이나 쓸모없는 일이다. 해당 도시들은 대서양에서 오는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 바람이 거센 도시인데 고층빌딩은 이러한 바람을 3~4배나 강하게 맞게 된다. 이런 도시에서 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컨퍼런스 전경



The big interview : Jan Gehl

□ The big Interview : David Chipperfield

- 페 널 : David Chipperfield(건축가)
- 주요주제 : 건축설계의 미래와 도시

• (사회자) 건축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David Chipperfield) 나의 세대에서는 건축설계가 산업과 결부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간 건축설계는 사회서비스에서 예술로 변화하였다. 이것이 흥미로운 변화라고 생각한다.
- 안젤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여전히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건축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런던에서는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어렵다. 너무나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자본이 설계를 이끌기 때문이다.
- 처음에 나는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현재는 건축가로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여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좋은 건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변화들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기도 하지만 자본과 불평등의 변화이기도 하다.
- 우리는 어떻게든 미래에 대한 변화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에 책임이 있다.

• (사회자) 최근 프로젝트를 보면 그래도 공공영역과 함께 작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보인다. 어떠한 프로젝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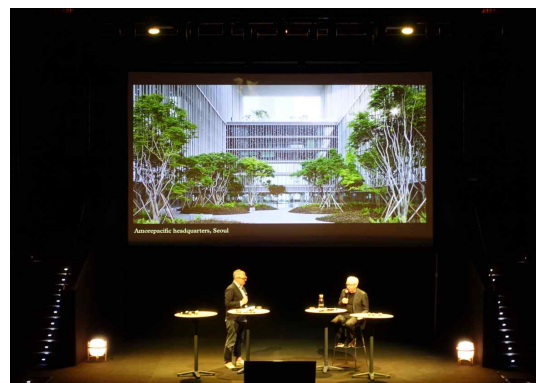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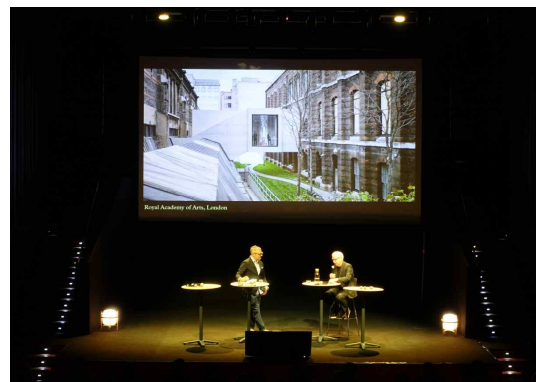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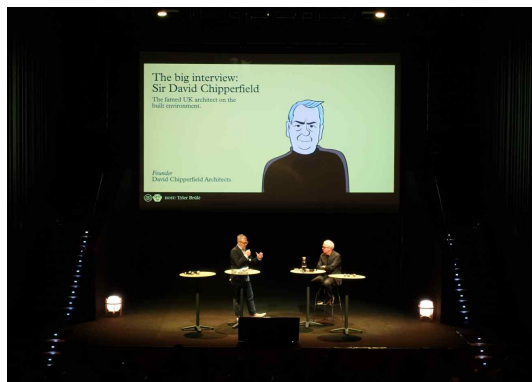
- (David Chipperfield) 미술관 작업이다. 흥미로운 프로젝트였는데 순수하게 건축적인 작업이었다. 형태를 만들고 재료를 고민하는 등 어떠한 면에서는 이상적인 건축 작업이었다.
- 질문은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사회적 요구가 강한 프로젝트에도 연결시키느냐이다. 노만 포스터 등 대형 건축가들은 더 많은 돈을 받고 대형 프로젝트 수행한다. 하지만 학교나 사회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가. 이런 프로젝트는 좋은 건축을 할 돈이 없다. 건축가들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더 부응해야 한다.
- 많은 도시는 계획과 개발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런던의 경우 발전, 개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는 거 짓된 설명들에 불과하다.
- 도시 차원의 비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젠 도시 계획이 건축보다 더 중요하다. 건축은 도시의 일부고 좋은 건축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고려가 중요하다.
- 점점 더 관점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옮겨져 간다. 어떻게 도시가 맞닥뜨린 도전에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리테일샵, 코너샵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도시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 (사회자) 삶의 질의 근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David Chipperfield)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해 종종 이 정도면 괜찮다고 얘기한다. 요즘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삶의 질의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거기엔 소비가 있고 자본이 있다.
 - 소비를 할 수 있는 근린에 산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행복은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낼 때 무엇이 행복을 만들어내는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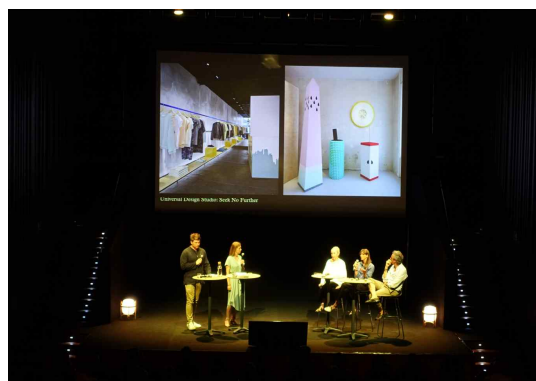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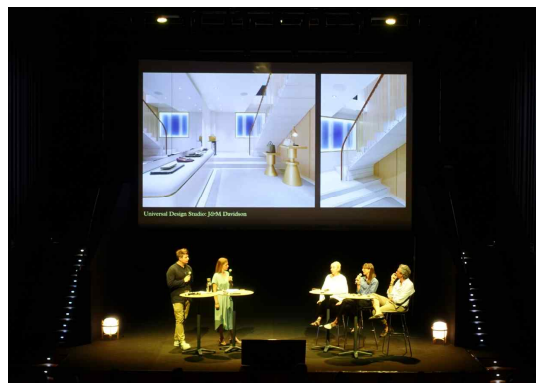
□ The future of retail

- 페 널 : Carla Sozzani(10꼬르소꼬모 설립자), Hannah Carter Owers(유니버설 디자인 스튜디오 디렉터), José Manuel Albesa(푸이그 브랜드 담당)
- 주요주제 : 상점, 상업가로, 쇼핑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회자) 리테일은 도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무엇이 리테일의 가장 흥분되는 지점인가?
- 어디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면 상점, 갤러리, 레스토랑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우리는 30년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젊은이든 내 나이 또래이든 이런 공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 (사회자) 오프라인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리적 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리테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 물리적 리테일 공간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구매경로가 온라인 쇼핑이 이동할거라고 생각했지만 물리적 리테일 공간은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리테일샵은 경험에 더 가깝다. 온라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한다. 물리적 리테일 공간은 퍼즐조각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지역 공동체와 주변 공간과의 연결성을 생각하게 된다. 리테일샵은 더 넓은 관점에서는 도시의 공간에 영향을 준다.
- 우리는 어떻게 고객들을 교육시킬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색을 매치시킬지, 옷을 갈아입는 경험을 어떻게 생각할지, 향기를 어떻게 매치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 (사회자) 리테일은 변화하는 중이고 브랜드는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아마도 이는 큰 변화일 것이다.
- 이것을 변화라기 보단 진화라고 부르고 싶다. 요즘엔 브랜드와 고객의 관계가 더 대화에 가깝게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새롭게 떠오른 통념 중 하나는 지역의 공동체와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자) 어린 사람들이 이런 경험에 반응을 잘 한다고 생각하나?
- 젊은이든 내나이 또래이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 모든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특히 밀라노에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The big Interview : David Chipperfield



The future of r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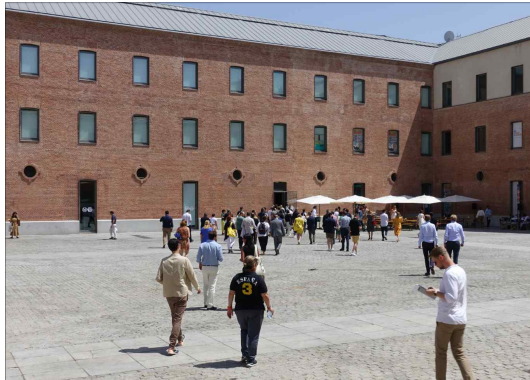
□ The new home makers

- 페 널 : Dr Johannes Eisenhut(Senn社 파트너), Marianthi Tatari(UN스튜디오 이사), Anni Sinnemäki(헬싱키 부시장)
- 주요주제 : 도시의 주택과 다양성

- (사회자) 어떻게 더 나은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도시는 주택공급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도시의 성장은 거의 퇴보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나가는 것을 망설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부와 시민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좋은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머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 (사회자) 성장과 밀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을까?
- 밀도는 도시에 좋다. 사람들이 살기 편안하게 하고 이것이 건강한 도시이다. 스위스는 밀도가 높은 도시가 없다. 모노클이 이런 사례를 좋은 도시 사례에 뽑은 것은 무척 고마워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 밀도가 낮은 것은 도시에 좋지 않다. 밀도와 다양성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
- 이 두가지가 동시에 삶에 영향을 준다. 밀도가 높을 때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양한 문화 배경을 함께 하게 돕는다. 이것이 건강한 도시이다.
- (사회자) 다양성에 대해서 도시마다 이야기 하는 것이 다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의 다양성은 다르다. 다양성은 지리적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평면을 계획했을 때의 다양성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이며, 스카이가든을 설계할 때의 다양성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소통할지에 대한 고려였다.
- 또한 다양한 면적의 주거를 제공하여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가족들이 섞여 살 수 있도록 하며 어린아이들을 고려하는 것도 다양성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양성은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성이 어떻게 대표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건축계에는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그들을 대변할 주체가 많지 않다.
- 나는 이걸 더 넓은 범위에서 세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헬싱키에서 설계를 공부할 때는 단 한 명의 다른 국적의 여학생이 있었다. 삼십 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우리 이걸 세대의 차이라고 본다.
- 이제는 이 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난민,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도 많다. 어떤 건축 공모를 진행했을 때 우리 그 지역에 수십가지의 언어를 쓰는 다른 공동체가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한다.



The new home makers



컨퍼런스 장소 외부 및 내부 전경

III. 기관방문 및 현장답사

1. 어셈블(Assemble) 본사 답사 및 인터뷰

1) 어셈블 개요

□ 설립배경

- **(멤버구성 및 활동영역)** 폐주유소를 영화관으로 만드는 시네롤리움(The Cineroleum)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인 18명의 멤버로 2010년에 시작한 어셈블은 런던을 중심으로 예술, 건축, 디자인 전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와 공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축가 그룹임
 - 현재 런던을 거점으로 15명의 직원과 3명의 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 작업방향 및 최근 이슈

- **(주민참여)** 어셈블은 지역주민에게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참가자이자 협업자로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터너상 수상)** 2015년 리버풀 그랜비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그랜비 포 스트리트스 (Granby Four Streets)’로 유럽에서 가장 명망있는 미술상인 터너상을 수상
 - 당시 개인이 아닌 그룹이 그리고 건축, 디자인 분야 작가가 터너상을 수상한 것이 상 제정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멤버들의 나이가 26~29세로 상당히 젊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음



[그림] 건축가 그룹 어셈블

출처: <https://m.popaganda.gr/art/visual-arts/assemble-vrario-turner> (검색일: 2019.7.24.)

2)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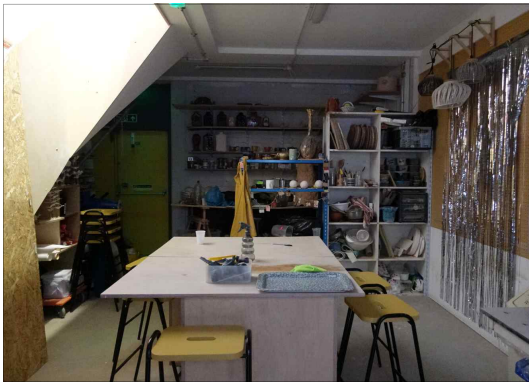
- 일 시 : 2019.7.1.(월) 13:00~15:00
- 장 소 : 런던 슈가하우스(어셈블 스튜디오)
- 면담자 : Jane Hall(어셈블 공동대표)
- 내 용 : 어셈블 스튜디오 및 작업방향 인터뷰

- (질문) 어셈블 스튜디오 건물에 대해 소개를 부탁한다.
- (답변) 어셈블 스튜디오인 슈가하우스는 원래 학교 건물이었으며 수영장으로 활용되었다. 2년 전에 직접 구조를 개조하여 입주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목공팀과 도예팀이 사용중에 있으며, 목공팀이 활용하는 공간의 경우 공간을 대여해주고 목공기구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 (질문) 공간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답변) 스튜디오내 관리팀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직업적으로 작업을 하는 팀에게 공간을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임대료는 스튜디오 규모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공방 임대료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 우리는 협력을 중요시한다. 우리가 이들에겐 임대인인 셈인데 같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작업공간을 같이 활용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더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자원을 공유하고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질문) 협력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가?
- (답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년에 한번 런던 크래프트 워크가 있는데 그 때 같이 참여하곤 한다. 지난 런던 크래프트 워크는 2019년 6월 이었고 많은 방문자가 있었다.
- (질문) 우리는 건축가가 아닌 사람이 건축 작업에 참여하는 것, 건축가가 건축업역 바깥까지 작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관심이 있다. 어셈블 멤버 중에 영국 건축사 자격증(RIBA)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 (답변) 어셈블 멤버 중 1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3명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건축사 자격증 취득은 다소 번거로우나 실제 작업을 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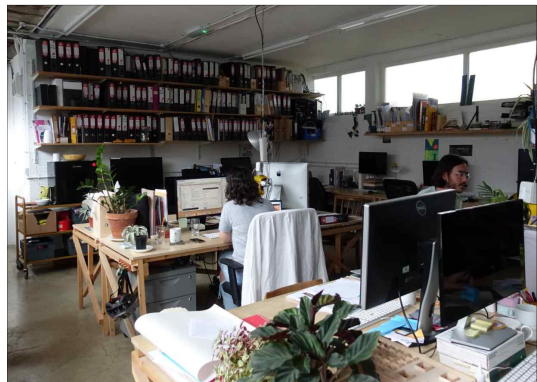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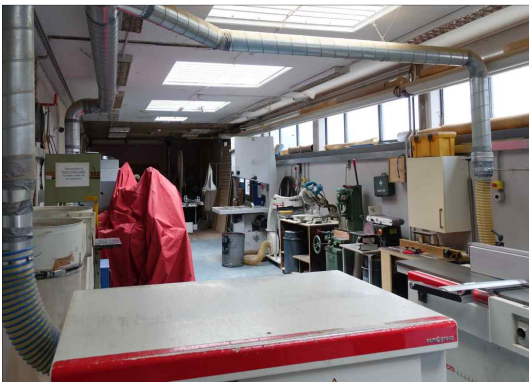
SUGARHOUSE STUDIOS	
Unit 1:	Workshop East CIC Steve Cook Furniture Mauro Dell'Orco Frankie Gallagher
Unit 2:	Tommaso Gatti
Unit 3:	Jack James Furniture
Unit 4:	Andrew Friend Lab-083 / Juan Montero and Jason Sarris
Unit 5/6:	Andrew Tomlin Daniel Kisiel Woodwork Bramble and Mr TWIGG / F L Nouibat Juan Junca
Unit 7:	Studio LW / East London School of Furniture
Unit 8:	Collective Matter Katie Spragg Eva Masterman Mary O'Malley
Unit 9:	Ying Chang
Unit 10:	Marie Jacotey Marianne Keating Louise Naunton Morgan / Stinsensqueeze Hannah Thual
Unit 11:	William Floyd-Maclean
Unit 12:	Assemble
Unit 13:	Laurence Symonds Tom Pearson Martha McGuinn
Unit 101:	Hayatsu Architects Corinna Dean / ARCA Yuki Sumner Architectural Communications
Unit 102:	Rob Szeliga
Unit 103:	Christopher Cook
Unit 104:	Rhythm Section Office
Unit 106:	Junk Son Ross From Friends
Unit 107:	Sugarhouse Records
Unit 108:	Rhythm Section Studio
Unit 109:	DDR Records
Unit 110:	Kieran Jones Songs

[그림] 슈가하우스 스튜디오 입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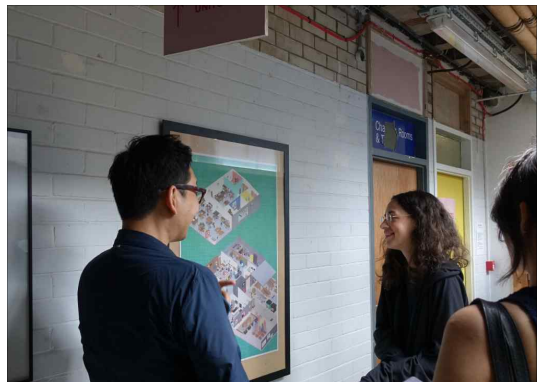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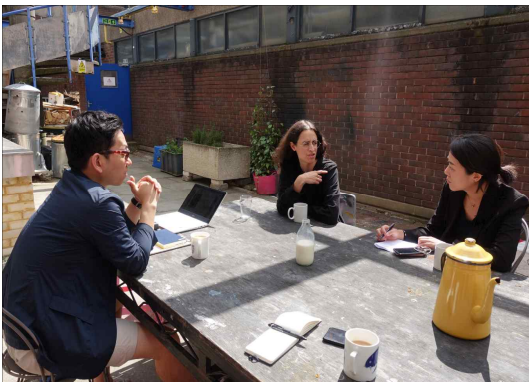
- 영국에서 자격증의 중요도는 클라이언트에 달려있다. 클라이언트가 자격증 여부에 따라 일을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골드스미스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계약서에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라 '아티스트'로 명시되어 있다. 사실 이건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가 클라이언트인 경우엔 대부분 건축 공모를 하거나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곤 한다.
- 최근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영국의 특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 **(질문) 비슷한 작업을 하는 팀이 있나?**
- (답변) 재밌는 작업을 하는 팀들이 가끔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 어셈블처럼 규모가 크고 구체적인 사업체로 형성된 경우는 없다. 대부분 '공동작업'이라고 명명을 하거나 비공식적인 그룹으로 작업을 한다.
- 셀프빌드, 손으로 하는 작업 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팀으로 구성된 사례는 별로 보지 못했다. 유사한 작업을 하는 단체로는 STORE라는 팀이 있다.
- **(질문) 셀프 빌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 (답변) 많이 사용한다. 셀프 빌드란 용어는 주로 주택 건축에 많이 쓰는 용어다.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주택을 지을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아마추어 건축가와 관련해서 많이 쓴다. 셀프빌드의 선구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월터 시겔(Walter Segal)이 그렇다. 건축가는 아니었지만 지역 공동체들이 참여해 건축을 하는 사례들을 만들어냈다.
- **(질문) 그럼 어셈블의 작업을 셀프빌드라고 생각하는가?**
- (답변) 작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직접 만들자' 라는 아이디어가 작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드는 과정을 도와줄 좋은 기술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그래서 이제 어셈블은 디자인을 하고 기술자에게 제작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 결과물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에 더 이상 큰 관심은 없다.
- 왜냐하면 직접 만드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질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 (답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시네롤룸은 우리끼리의 작업이었다. 주민참여 및 그룹 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목적은 없었다. 우리는 대학을 막 끝마친 상태였고 뭔가를 만들고 싶었다.
- 학교에서 재밌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도면만 그리고 있었다. 뭔가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네롤룸 작업을 시작했다.
- 시네롤룸에 사용된 커튼은 천장 마감재로 쓰는 재료고 정말 다양한 색상이 있었다. 50미터 짜리 재료를 무료로 얻었다. 건축재료 회사는 재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



슈가하우스 외부 및 내부 작업실 전경



목공소 및 사무실 전경



Jane Hall 대표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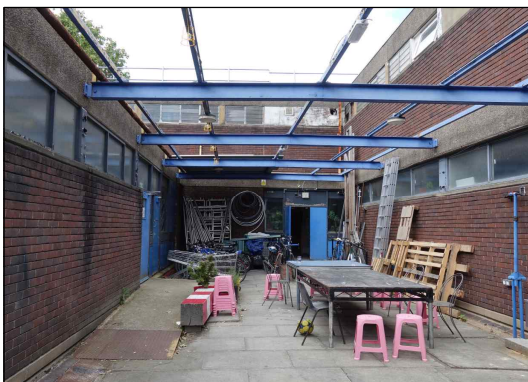
- 우리는 메일을 보내서 재료들을 공수했고 회사 마케팅 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재밌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인 대부분 이런 건축 재료를 직접 눈으로 볼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걸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회사 마케팅팀에서는 생각했다. 팀 멤버는 20명 정도였고 친구의 친구 등을 동원해 작업했다.
- 이때 당시엔 이름도 없었으나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은행 계좌를 열어야 해서 이름을 정하기로 했다. 어셈블은 뭔가 만드는 방법, 조립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약 20명이 뭔가 만들기 위해 모인 그룹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
- **(질문) 그랜비와 같이 지역 프로젝트인 경우엔 어떤가? 참여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가?**
- (답변) 모든 과정은 클라이언트가 누구이며 지원금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다.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공공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주민이 누군지 알아야 했다.
- 그랜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랜비 공동체 토지신탁이 클라이언트이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구조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어있었다. 이것이 기본 전제조건이나 마찬가지였으며,
- 마치 '구원자' 등과 같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구원하겠다,' 와 같은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다.
- 그랜비의 경우에 10가구를 수리하였다. 적은 지원금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역 주민이 수 십 년간 그 집과 동네를 얼마나 아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인테리어에 쓰는 제품들에 좀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기로 했다. 타일이나 벽난로 공간 같은 것에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었다.
- **(질문) 재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를 하는가?**
- (답변) 우리에게 이건 마치 취미생활과 같다.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재료를 연구하고, 새 프로젝트가 있으면 새로운 시도를 할 계기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랜비 프로젝트와 같이 주거공간 프로젝트의 경우에 우리는 그 안의 제품들을 만들 기회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어셈블 구성원 중 일부는 만드는 일과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명은 조각 전공인데 항상 세라믹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나무로 뭔가를 만들고 있거나 한다. 여기 모든 재료들은 DIY라고 할 만큼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간단한 공정을 거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문손잡이는 바베큐 화덕에 바나나 껍질을 태워 만든 것이다.
- **(질문) 런던 레거시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 회사는 어떤 역할을 했나?**
- 런던 올림픽의 경우 아주 큰 프로젝트였다. 그 지역 자체가 지역 우편번호를 따로 가질 정도로 규모가 컸다. 런던 레거시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의 경우 해당 부지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도시의 일부로 잘 기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이 회사는 주택공급 등 이 지역의 개발을 총괄적으로 주도했다. 이들은 특히 주변 경계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의 이전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관리하는 지역에 있었고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들이 매칭 펀드로 지원금을 주었고 해당 공간은 5년간 유지되었다.

- (질문) 임시 공간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있는가?
- (답변) 사실 우리 일시적 활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낭비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야드하우스의 경우 다시 철거하고 세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시네콜롬 프로젝트가 임시 프로젝트였던 이유는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다.
- (질문) 일반인들이 참여할 경우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 (답변) 핵심 디자인은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일반 참여자들은 좀 더 작은 것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작은 규모로 나누는 것이 좋다. 하루만 오더라도 뭔가를 완성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람들이 참여하기 좋다.
- 야드하우스의 경우 내부 공간은 전문적으로 만들었지만 파사드의 경우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다. 콘크리트를 틀에 찍어내면 되는 일이었고 특별한 작업복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 대상지는 전문가들이 잘 관리한 상태였고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일을 하면 되었다.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는 걸 느끼고 결과물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결과물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을 했어' 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 (질문) 한국에 정책적으로 조언할 부분이 있는가?
- (답변) 한국과 영국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영국은 중앙 중심적이지 않다. 모든 지방 정부가 각자 일을 한다.
- (질문) 한국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나?
- (답변) 해외 프로젝트도 자주하지만 문제는 너무 멀다는 것이다. 의미있는 작업일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일을 한다. 문화적 맥락 등 때문에 일하기 쉽지 않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는 점도 어렵다. 우리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 블랙호스 워크샵이나 그랜비에서도 위원회에 참여하여 6~7년간 활동하고 있다. 일회성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프로젝트가 쉬운 것은 아니다.
- 그랜비에도 멤버 한명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 프로젝트는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가깝다.
- (질문) 어셈블에 몇 명이 일하고 있나?
- (답변) 현재 15명의 멤버가 있고 3명의 지원인력이 있다. 15명이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월급에 같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인턴 직원도 있다.
- 인력구성은 어셈블 시작부터 거의 비슷하다. 회계담당 인력 1명이 새로 들어왔고 멤버 중 한명은 다른 큰 회사로 이직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 다른 이직한 멤버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면 와서 도와주고 파티 등에도 온다. 약 20~21명이 멤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식 멤버는 15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 (질문) 블랙호스 워크샵에서 런던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답변) 런던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했다. 대지와 건물이 런던시의 소유였으며 해당 대지와 건물을 대여해 주었다. 예술 단체인 크리에이티브도 지원금으로 프로젝트가 성사되도록 도왔다.

- 런던시에서 요즘 관심있는 것은 임시 활용이다. 건설 과정 중에 빈 건물을 활용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블랙호스 워크샵 같은 경우엔 7년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다.
- 민간 개발업자들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건물을 활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움직임이 많다.
- 하지만 블랙호스 워크샵 경우가 아주 흔하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린 아티스트들과 공동으로 일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지기 쉽지 않다.
- (질문) 작업실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답변) 우리가 먼저 정부나 디벨로퍼에게 컨택을 했다. 스트라트포드에 작업실이 있었을 때 약 5년정도 임시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고 3년차 정도 되었을 때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지방정부와 디벨로퍼에게 직접 설명을 하였으며, 발로 뛰며 유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 (질문)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줄 때 혹시 기준이 있었나?
- (답변) 세라믹 1팀, 목공 1팀 등 스튜디오 입주자간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또한 작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직업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팀들을 선정했다.
-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공간을 오고가며 유지가 되었다. 우리의 꿈은 런던과 좀 떨어진 곳에 작업 공간에 최적화 된 공간을 새롭게 지어서 이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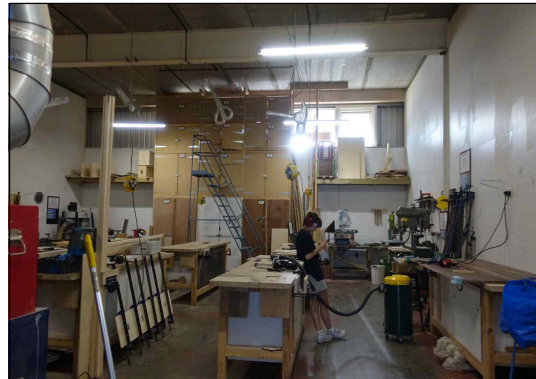
슈가하우스 내부 작업공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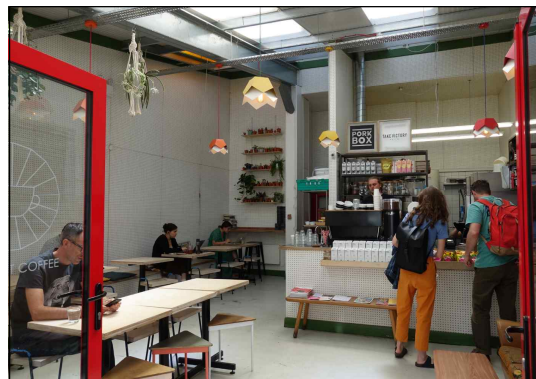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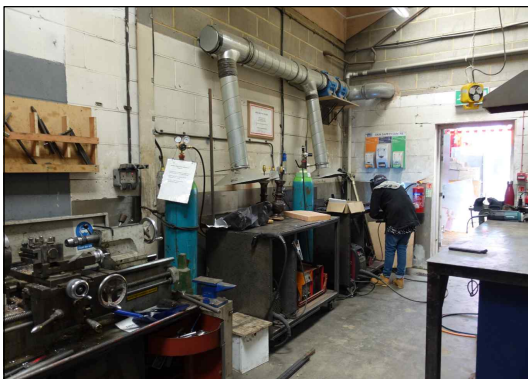
슈가하우스 외부 작업공간 전경

2. 블랙호스 워크샵(Blackhorse workshop) 답사

- **(설립목표)** 지역의 풍부한 공예 유산을 바탕으로 한 블랙호스 워크샵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 공공공방으로, DIY 문화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간성격)** 월섬스토우(Walthamsto)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공도구, 작업 공간 및 현장 기술 전문 지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임
 - 독립작가, 개인 취미생활자,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이자 학습공간임
 - 다양한 장비와 수업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카페, 베이커리와 양조장은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음, 원하는 사람은 공간을 빌릴 수 있으며 매달 시장이 열림
- **(공간구성)** 블랙호스 워크샵 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의 형태로 건립되었으며, 사용된 재료는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서 워크샵 내에 설치된 기계들을 통해 완전히 다시 재사용 될 수 있게 설계됨
 - 공간의 유연성과 단순함을 확보하여 다양한 용도와 공간에 맞춰 활용될 수 있음
- **(어셈블 역할)** 주민참여 유도, 사업계획과 건축 설계,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향후에도 본 워크샵의 전략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어셈블은 도서관이나 레저센터와 같이, 블랙호스 워크샵을 도시의 친숙한 부분으로 만들어 다른 워크샵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목적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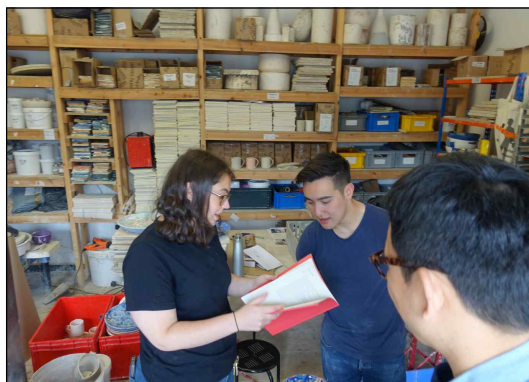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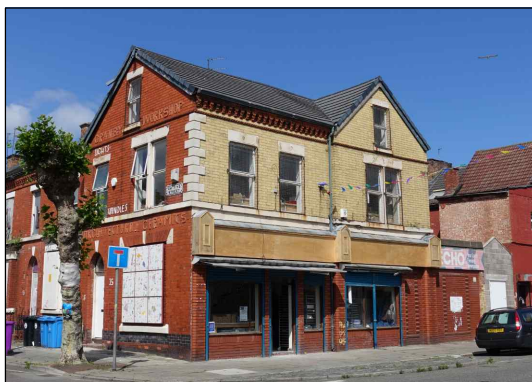
블랙호스 워크샵 입구 및 내부 목공방



블랙호스 워크샵 철물 공방 및 카페 전경

3. 그랜비 포 스트리트(Granby four streets) 답사

- **(프로젝트 개요)** ‘그랜비 포 스트리트’ 프로젝트는 철거 위기에 놓인 리버풀 테라스하우스(벽을 공유하는 여러 단독 주택을 연속적으로 모아놓은 저층 집합주택)를 지키려는 지역 주민들의 20년에 걸친 사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프로젝트 배경)** 그랜비 스트리트는 과거 활기가 넘치던 리버풀의 변화가였고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커뮤니티가 모인 도시였으나, 거듭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들로 인해 네 개의 거리만 남기고 그랜비 스트리트의 집들이 모두 철거되어 주민들도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한 단체의 주도로 그들의 거리를 되찾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주민들은 ‘그랜비 포 스트리트 주민토지신탁(Granby Four Streets Community Land Trust)’을 결성함
 - 그랜비 주민토지신탁은 주민들이 부담가능한(affordable)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갖추기 위해 어셈블을 고용하여 그랜비 포 스트리트 프로젝트를 추진
- **(추진과정)** 모든 작업이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었으며, 30년 이상 방치되었던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이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어셈블은 도시재생 변화의 주인공은 주민이라 생각했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설해 그들의 의견과 방향성을 존중했고, 주민과 함께 여러 채의 낡은 집을 수리함
 - 그랜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법으로 어셈블은 그랜비에서 만들어진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랜비 워크숍을 설립함
 - 각각의 제품들이 모두 수공예 제품으로 제작되었으며, 제품 판매에서 얻은 모든 수익은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사업에 쓰임
 - 그랜비 포 스트리트 프로젝트는 이후 그랜비 공방(Granby Workshop) 프로젝트로 이어졌으며, 그랜비 공방은 실험적인 수제품을 만들고 가정에 판매하는 곳으로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그 제품을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 특히 이 공방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은 13세에서 18세의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활용됨
- **(터너상 수상 이후)** 어셈블이 지역사회 재생 프로젝트로 터너상을 수상한 뒤, 워크숍 제품을 전시하는 쇼룸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실제로 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
 - 현재는 어셈블은 빅토리아 시대의 공중목욕탕을 개조한 골드스미스 대학교 아트 스튜디오와 연결된 건물을 골드스미스 아트 갤러리로 만드는 작업 의뢰를 받아 진행 중임
 - 어셈블의 작업은 단지 물리적 공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공간에서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식까지 고려했음



그랜비 공방 외부 및 내부



그랜비 주민 인터뷰



Winter garden 내부 전경

4. 모노클(Monocle) 본사 답사 및 인터뷰

- 일 시 : 2019.7.2.(화) 9:00~12:00
- 장 소 : 런던 모노클 본사
- 면담자 : Thomas Reynolds(Managing Editor)
- 내 용 : 모노클 편집 방향 및 살기좋은 도시 서베이 기준

- (질문) 팟캐스트, 모노클 잡지, 카페, 리테일샵 등 많은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 중 어떤 매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가?
- (답변) 모노클 잡지가 가장 중심이다.
- 예를 들어 카페의 경우 이를 위해 잡지에서 좋은 카페를 여러번 소개하고 어떠한 카페가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여러 번 다뤘었다.
- 관련 사업은 모노클 잡지를 중심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 (질문) 어떤 기준에 따라 장소들을 소개하는가?
- (답변) 우리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경우, 어떤 공간은 좀 더 저렴한 가격대의 친근한 레스토랑일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엔 음식이 특별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지리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쿄에 있는 레스토랑, 런던에 있는 레스토랑, 토론토, LA, 홍콩, 등등 다양하게 다루려고 노력한다.
- 또한 각 지역에 있는 에디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장소의 공간을 소개하고 있다.
- (질문) 이번에 25개의 살기 좋은 도시를 소개했는데 어떠한 기준을 따랐는가?
- (답변) 아주 많은 기준들이 있다. 공원이 얼마나 많은지, 국제공항의 취항 국가·도시수가 어떠한지, 독립 서점이 있는지 등 잡지에 소개된 것과 같은 매트릭스에 따른다.
- (질문) 도시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가?
- (답변)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별 에디터와 모노클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서베이를 담당하는 에디터가 있으며 해외 에디터들이 협력하여 결정하였다.
- 취리히의 경우 전담 에디터가 있고 도쿄에는 지부가 있다. 마드리드에서는 에디터와 인턴이 협력하여 조사하였으며, 뮌헨, 코펜하겐에도 에디터가 있다.
- 각 도시에는 협력하여 연락하는 에디터가 상주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에디터는 우리와 10년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질문) 모노클 본사가 위치한 런던은 왜 포함이 안되어 있는가?
- (답변) 런던은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고 범죄율이 높다. 도쿄도 주거비용이 비싸지만 그래도 런던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모노클 본사 외부 및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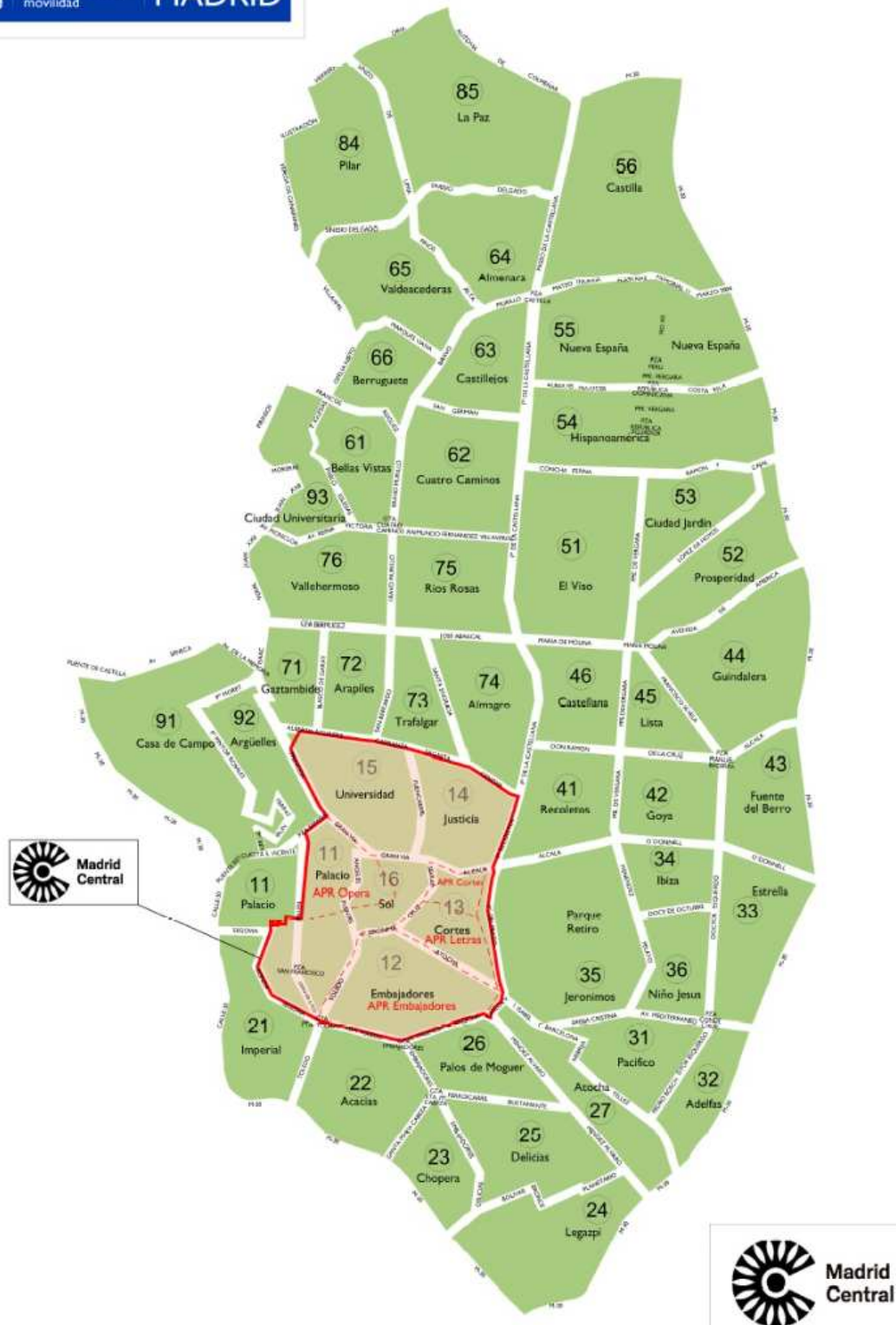
담당자 인터뷰



모노클 카페 외관

5. 마드리드 센트랄(Madrid Central) 답사

- **(개요)** 마드리드 센트랄(Madrid Central)은 2018년 11월에 시행된 저공해(low emission) 구역제도로,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조치임
 - 공간적으로는 472헥타르에 해당하는 구시가지 중심구역을 포함함
- **(사업목표)** 보행자우선구역, 자전거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목표이며 소음공해를 줄이고 보행자우선구역을 확장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세부내용)** 마드리드 센트랄로 지정된 구역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장애인 및 경찰차, 앰불런스 등 공무집행이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목적의 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며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진입 여부가 결정됨
 - 전기차량과 같이 무공해 차량(무배출 차량)의 경우 시간 등의 제한 없이 구역에 진입 가능하고 ECO차량(하이브리드 등)의 경우 동 구역 내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 가능
 - 환경스티커 C(가솔린 차량) 또는 B(디젤차량이나 연식이 오래된 가솔린 차량) 등급의 차량인 경우 공용주차장 또는 개인 주차시설에만 주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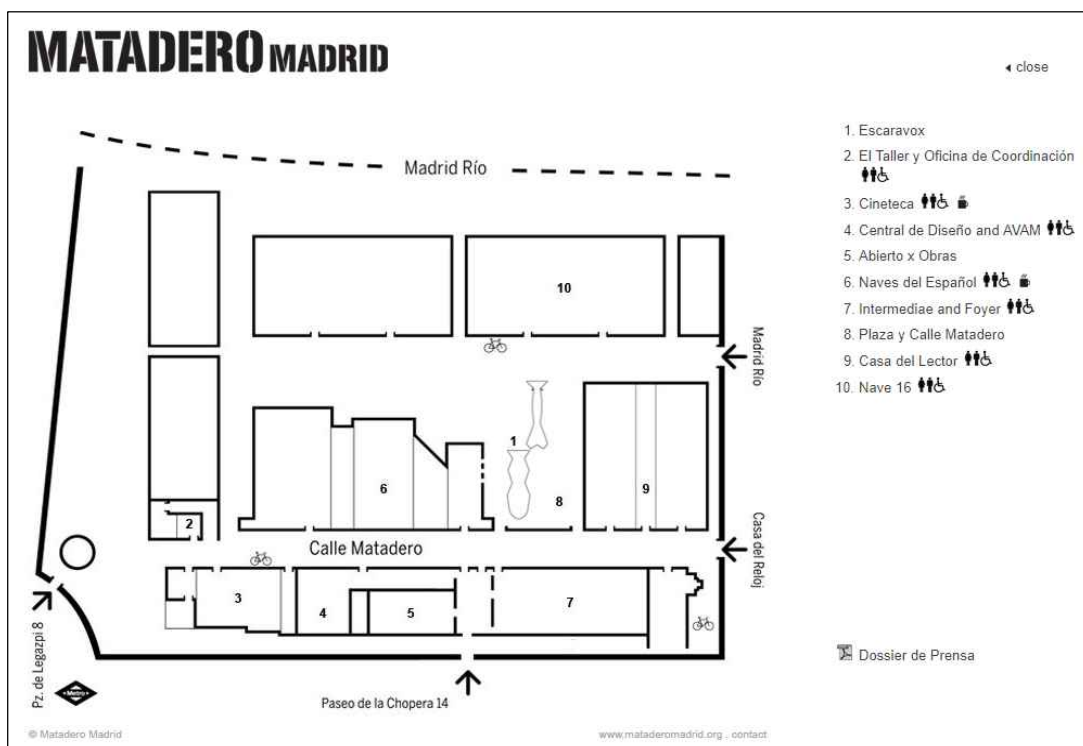


마드리드 센트랄 구역도

출처 : https://www.madrid.es/UnidadesDescentralizadas/UDCMovilidadTransportes/AreaCentral/01InfGral/Madrid%20Central_Plano%20con%20logo.jpg (검색일: 2019.8.1.)

6. 마드리드 마타데로(Madrid Matadero) 답사

- (개요) 과거 도축장시설로 활용되던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한 사례임
- (건축물 연혁) 마타데로는 만사나레스(Manzanares)강 주변에 위치한 목초지에 건설된 가축 시장점 도축장이었으며, 이후 1932년에 가금류 도축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추가로 건축하였음
 - 20세기 초 마드리드 시청 소속 루이스 베지도 이 곤잘레스(Luis Bellido y Gonzalez)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곳으로, 1910년부터 1925년 사이에 완공됨
 - 본 도축장은 1924년~1925년 개장하여 1996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이후 80년대 이르러 일부 건물은 개축되어 스페인 국립발레단과 무용단의 본부로도 활용, 일부 건물은 열대지방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자 감자 등의 작물을 보관하는 창고로도 사용됨
 - 이후 1997년 마드리드 도시개발계획을 통해 보호건축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부터 마드리드 시청은 문화공간으로 마타데로를 개방하고 2007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마타데로가 대중에게 개방됨
- (의의) 문화공간으로의 마타데로 리노베이션은 산세바스티안 지역의 담배공장 복원사업 등과 함께 스페인 내 재건·복원(restoration)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시회,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전개되는 곳으로 마드리드에서 문화예술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
 -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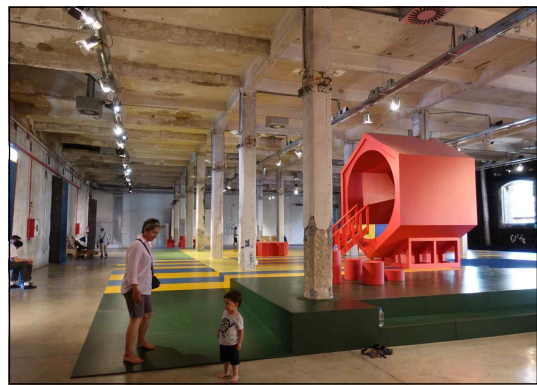


마타데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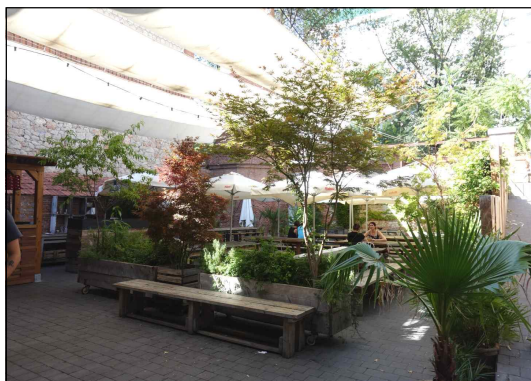
출처 : <http://www.mataderomadrid.org/index.php?idioma=EN> (검색일 : 2019.8.1.)



마타데로 입구 및 외부 전경



내부 전시공간



영화관 부설 레스토랑

7. 자문회의

- 일 시 : 2019.6.30.(일) 14:00~16:00
- 장 소 : 런던 UCL
- 면담자 : 조현지 박사(UCL)
- 내 용 : 영국의 지역재생 관련이슈 청취

- (영국)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UK2070 위원회 설립
 - 영국 런던의 경우 인구가 집중되며 증가하고 있지만 영국 지방도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
 - 런던의 집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배 가까이 비싸며, 생산성도 다른 지역보다 50% 이상의 초과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어 일자리의 런던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
 - 그간 영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광역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 과거 도시재생을 담당했던 기관들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지역개발기구가 지역경제파트너십(Local Economic Partnerships: LEPs)로 변화하여 지방에 대한 지원금은 더욱 줄어든 상황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음
 - 이에 영국학계와 연구기관간 협력으로 지역간 격차해소를 지원하기 조직으로 UK2070 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중심의 경제로 변화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
 - 또한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영국 리뉴얼 펀드를 제안함
- (런던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런던내 공연장, 박물관, 갤러리 등이 점점 감소하며 문화산업의 침체가 런던시의 이슈로 부각
 -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시장은 2030년까지 런던 문화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런던 문화기반시설 육성계획'을 발표
 - 갤러리, 도서관, 극장, 공방, 음악·영화 스튜디오, 리허설 공간, 스케이트보드 공원, 펍 등 문화기반시설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추진 중
- (관련 이슈) 영국내 사용자 주도형 공간조성 이슈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언급되는 사용자 주도형 공간조성, DIY 리노베이션 등 용어는 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음
 - DIY로 대표되는 직접시공 담론은 셀프빌드(Self-Build)라는 단어로 영국에서 통용되고 있음
 - 이는 상업공간보다는 주택을 중심으로 거주자가 직접 공간을 계획하여 건축물을 짓는 의미를 사용되며, 상업공간 운영자가 공사비 등의 사유로 직접 공간을 구성하는 우리나라의 사용자 주도형 공간조성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IV. 종합 및 시사점

□ 건축가의 역할과 지역재생 주체의 변화

- 어셈블은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이 모여 유휴공간과 쇠퇴한 공간을 직접 변화시키기 위한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였음
- 기획 및 설계 주체가 개별 공중에 개입 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로 커리어를 시작한 어셈블은 건축가 고유업역인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자재제작 등 건축설계 이외의 영역의 활동도 병행
- 또한 그랜비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주거공간 및 공방(워크샵) 조성, 수익모델 발굴 등 지역 커뮤니티에 밀착된 활동을 통해 건축분야의 활동영역을 확장
- 지역재생의 주체로서 건축가의 새로운 역할과 실행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어셈블 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공간 정책 추진

- 마드리드 센트럴 정책의 경우 472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 공간에 교통통제를 수행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심부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도심지 대부분을 통제구간으로 지정하여 상업시설 관계자의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선호가 높아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마드리드 마타데로의 경우 과거 도축장으로 이용된 건축자산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활용한 사례임
- 이러한 경향은 비단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도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향으로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보행자와 대중교통, 자전거 중심의 도시공간으로의 전환, 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재생 등이 세계 주요도시의 경향임을 확인
- 비교적 덜 알려진 스페인 사례를 발굴하여 교통/공간 정책의 참고사례를 제시

□ 도시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활용 방향

- 모노클의 경우 도시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지표체계와는 다른 지표로 세계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음
- 가점사항인 독립서점의 수, 감점사항인 스타벅스의 수 등 새로운 관점의 지표를 통해 도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
- 도시 인프라의 ‘양’ 보다는 도시 방문객(관광, 비즈니스 목적 등)과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 및 경험의 ‘질’에 방점을 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구성하고, 일반적인 세계 대도시 보다는 지역성이 강한 도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노클의 지표 체계는
- 최근 우리나라 지역재생의 화두인 ‘로컬’ 이슈에 유용한 선례로 참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이슈와 관점을 확대 재생산하는 매체(컨퍼런스, 잡지, 인터넷 라디오 등)의 활용 방법도 우리나라 지역재생 이슈 전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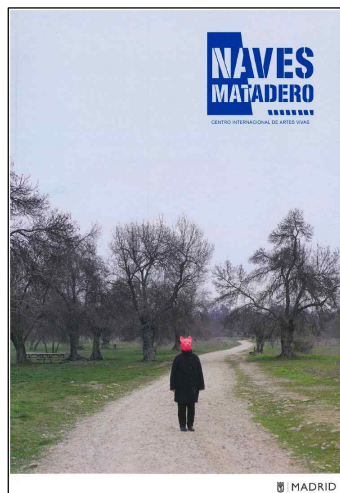
V. 취득자료



모노클 자료 (모노클 트래블 가이드 마드리드편, 모노클 살기좋은 도시 특집호, 윙크리에이티브 소개서)



그랜비 자료 (그랜비 워크샵 카탈로그, 이슈세븐 리버풀 특집호)



마타데로 자료 (마타데로 전시소개서, 전시장 안내자료)